

세종의 문자 정책과 한글 진흥 정책의 미래

최용기(국립국어원)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한글 진흥 정책의 미래 |
| 2. 세종의 민본 정신과 문자 정책 | 5. 맺음말 |
| 3.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자생활 | |

<국문초록>

세종 대왕은 백성을 위해서 쓰기 쉽고 편리한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위대한 창조였으며 이 문자를 돈에 새기고 관리 등용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였고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문학 작품을 직접 집필하였다.

한글 진흥 정책의 미래는 국어 정서법, 한글의 글자꼴, 컴퓨터의 한글 코드, 한글 문화권의 꿈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띄어쓰기의 문제점과 고유 명사 표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문자의 모양과 관련해서도 한글 글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글의 글자꼴과 관련하여 자모 순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컴퓨터상의 한글 코드와 관련하여 완성형과 조합형 모두 문제점이 있으므로 컴퓨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세종 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것을 지금에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한글 코드, 띄어쓰기, 한글 글자체

1. 머리말

훈민정음이 1443년(세종 25년)에 창제되고 그 3년 뒤인 1446년(세종 28년)에 공식적으로 반포되었다. 이때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문자의 이름이며 동시에 책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에 최초로 ‘국어’(國語)라는 명칭(훈민정음 해례본 ‘합자해’, 且國語雖不分輕重, …於國語無用)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표준어’(우리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에 훈민정음이 정부의 공식 문서에 대표적인 표기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894년(고종 31년) 11월 21일에 공포된 ‘칙령’ 제1호 공문식 제14조에서부터이다. 곧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법률 칙령은 다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며 또는 국한문을 혼용한다.)이라 한 것이 그것인데 이 가운데 ‘국문’이란 오늘날의 한글을 가리키며 한글은 이때부터 말 그대로 나라를 대표하는 글자(나라글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칙령은 공문서의 대표 형식을 ‘한문’에서 ‘국문’으로 바꾸는 데는 커다란 공헌을 하였지만 그 뒤에 이것은 우리의 공식적인 문자생활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것이 ‘국한문 혼용’인데 공문서에서의 국한문 혼용은 1908년(순종 2년) 2월 6일자 관보에 처음 나타난다. “各官廳의 公文書類는 一切히 國漢文을 交用하고 純國文이나 吏頭나 外國文字의 混用함을 不得함”이 그 내용이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는 오랫동안의 한자 위주의 굳어진 문자생활의 버릇에서 비롯하는데 이미 굳어진 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의 문자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일제의 식민 시대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게 되면서부터이다. 한글이 나라글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1948년 10월 1일(공포는 10월 9일, 법률 제6호)에 국회를 통과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비록 한 줄밖에 한 되는 내용(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이지만 그 파장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

1949년 9월에 ‘한자 사용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어 가결되었다. 그 이후에 한글 전용 정책과 한자 교육 정책은 혼란을 빚게 되었다. 정부 당국도 이런 논쟁에 휘말리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문자 정책에 관해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지만 ‘한글 진흥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면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어 정책과 한글 정책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이 글은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위를 알아보고 우리의 문자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지, 미래의 한글 진흥 정책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인접 학문과의 연계 문제, 관련 부처와의 업무 조율 문제, 학자들 간의 이견 조율 문제 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자 개혁은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국민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세종의 민본 정신과 문자 정책

2.1. 세종의 자주 정신과 민본 정신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의 머리말에서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달라서 중국말을 적는 글자인 한자로써는 우리말을 적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은 말하려는 일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훈민정음 머리말에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세종 대왕의 민족 자주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글자인 한자로써는 우리말을 적을 수 없음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인 것 같으나 그때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조류를 생각해 볼 때는 반드시 당연한 일이라고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때의 지식인들은 중국에 대해 극히 저자세이었고 모화사상에 흠뻑 젖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극단적인 표현이 최만리, 신석조, 정창손 등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에 나타나 있으니 그 몇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제 (중국과) 글자도 같게 하고 수레바퀴의 규격도 같게 할 때를 당하여 언문을 만들은 보고 듣기에 놀랍습니다.”

“만약 (언문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국으로 들어가 이를 비난하는 일이 있다면 어찌 사대 모화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역대 중국이 모두 우리나라를 …… 중국과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지어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려 하니, 어찌 문명의 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실록 제103권 세종 26년(1444년) 음력 2월 20일조)

이들은 중국 사람이 되고 싶어 못 견디는 무리이었음을, 우리는 이 글에서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사대 모화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세종 대왕은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다는 것을 첫 마디에 내세우고 있으니 세종 대왕의 민족 자주정신은 항상 뼈에 사무쳐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세종 대왕의 이러한 정신은 동북아시아의 국경선을 확정하여 근세적인 개념을 확립하는 데에도 강하게 나타나 있고 중국 음악을 부흥시켜 새 음악을 작곡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향악을 작곡하여 그것을 기보하기 위해 ‘정간보’(井間譜)를 창안한 데에도 나타나 있다.

둘째는, 이 머리말에서 우리는 세종 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민본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음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세종 대왕의 민본 정신을 나타낸 것이며 이 정신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쉽고 조리 있게 만들어진 까닭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백성이 이른 시일 안에 다 배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자는 되도록 쉬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세종 대왕의 밑바닥 정신은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끌어진다. 아기 낳은 관비의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일, 감옥 안에 물동이를 두어 죄수들이 한더위를 견디기 쉽도록 해 준 일, 죽을죄는 반드시 3삼을 받도록 한 일, 그리고 노비에 대해 사사형벌을 금한 일 따위는 모두 세종 대왕의 이러한 민본 정신과 인도 정신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훈민정음 창제에 강력히 반대하던 최만리 일파에 대해서도 누누이 타이르며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의금부에 가두었으나 그 이튿날 풀어 주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2.2. 세종의 문자 정책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과감한 실천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실로 위대한 결단과 놀라운 글자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훈민정음의 머리말에서 세종 대왕의 민본 정신을 읽을 수 있었고 나아가서 새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세종 대왕이 매우 독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세계의 여러 글자의 뿌리를 살펴보면 불과 몇 개로 집약이 된다고 한다. 이 몇 가지의 글자에서 모든 나라들이 그 글자를 빌려 쓴 것이다. 그리고 이 몇 가지의 글자도 대부분 어떤 개인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글자 한글만이 세종 대왕과 그의 신하(또는 학자)들이 힘을 합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것도 세계의 여러 문자 가운데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동양 철학의 원리를 깔고 있고 아주 쉬운 글자를 창조한 것이다.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웬만한 독창적인 두뇌로써는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위대한 창조였다. 세종 대왕은 이러한 정신과 성격을 글자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있는 정성을 다하여 몸소 연구에 골몰하였다. 어떤 분은 세종 대왕은 언어 정책만 세웠을 뿐이지 실질 연구는 신하들이 하였다고 하는 일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최만리의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번에 청구 조정에 거동할 때에 특히 농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염려하시어 시종의 모든 사무를 간략히 하여 앞날에 비하면 옆에 열아홉을 줄이고, 계품하는 공무까지도 또한 정부에 맡겼는데 저 언문은 국가에 시급한, 꼭 해야 하는, 시일을 정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 홀로 행재에서 급급히 이것을 놓지 않고 임금이 조섭하는 때를 번거롭게 합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는 세종 대왕이 언어 정책을 세운 데에만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이 조선 한자의 소리나 중국말의 소리를 적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배제해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세종 대왕이 몸소 연구에 관여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언어학(운학)에서 많은 것을 애써 배웠으니, ‘홍무정운역훈’과 ‘동국정운’은 그 결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보급에도 관심을 두었다. 훈민정음을 보급하는 방편으로, ‘효테례의’(孝悌禮義)라는 별전(別錢)을 만들어(출전, 고전대감(古錢大鑑) 훈민정음을 돈처럼 널리 쓰이게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경하전’(慶賀錢)으로 다루었다고 한다.)¹⁾ 또, 관리 등용 시험에도 훈민정음을 한 과목으로 삼도록 하였고 신하들에게도 문서를 훈민정음으로 만들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운문과 산문에도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표본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세 책 중에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직접 지은 것(이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으나)이며, 그 표기법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자말을 적는 데 있어서 ‘석보상절’에서는 한자가 위에 놓이고 그 밑에 그보다 작은 한글로 소리를 적어 놓았는데 ‘월인천강지곡’에서는 그 자리와 크기가 바뀌어 있다. 곧 한글을 먼저 내세우고 그 밑에 그보다 작은 한자를 붙여 놓았다.

삼천천대천천이 불며 룡樓뎨이 일어늘 안준 건노매 어마님 모르시니.
(월인 기 16)

1) 이 별전을 재구하여 지난 2006년에는 한글날 기념주화로 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세계주화 책임자회의(DMC)에서 세계 최고 주화로 선정, ‘가장 기술적인 은화’ 부문 대상 수상, 참고 문헌 뒤에 첨부

이러한 표기 방법으로써, 우리는 세종 대왕의 한자말 표기의 근본정신을 알 수 있다. 곧 세종 대왕은 한자말도 훈민정음으로 적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글자 적기의 큰 혁명이니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 대왕의 혁신적인 성격을 아울러 엿볼 수 있다.

둘째, ‘석보상절’의 표기는 소리대로 적기이다. 그런데 월인천강지곡의 표기는 오늘날의 표기법과 비슷한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날 돌이 츠거늘 어마님이 뻔뻔람_{뻔뻔}원_원을 보라 가시니 (월인 기 17)

여기에서도 우리는 세종 대왕이 우리말에 대한 문법 의식을 소유한 분임을 알 수 있다. 곧 그때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종 대왕은 현대의 언어학자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말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최만리가 훈민정음으로 중국 저서를 번역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세종 대왕은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또 너희가 사성 칠음과 자모가 몇인 줄 아느냐”(세종실록 제103권 세종 26년(1444년) 음력 2월 20일)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 겨레의 문자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훈민정음 이전에 글자의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과 그 마음가짐을 잘 전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향가와 이두 같은 우리말의 기록은 그 분량이 너무나 적은데다가 그것마저 그 당시의 언어로 복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많은 한문 서적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이 기록들은 마치 중국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감정을 그려 놓은 것같이 느껴지는 것들이다. 한 민족의 언어와 그 민족의 사고방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문의 기록은 중국적인 사고방식에 끌리지 않을 수 없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겨레의 역사 기록은 훈민정음 창제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조상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의 문자 정책을 그대로 보여 준 대표적인 것이며 우리 겨레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훈민정음(한글)에 대하여 외국 학자들이 평가하는 극찬의 글이다(참고 자료).
- (1) 한글은 음소적이고도 음절적인 장점을 지닌 아마도 세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어느 나라 문자보다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일 것이다.(라이사 위와 페어뱅크, 미국 하버드대학 교과서)
 - (2)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하였다. (포스, 네덜란드 라이센 대학)
 - (3) 한글은 자못 수준 높은 조음 음성학적 분석의 기초 위에서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알파벳이다. (맥콜리, 미국 시카고 대학)
 - (4) 한글은 음성 같은 계열 안에서 조직적인 모양 변화를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데 동시에 발생기관과 소리의 상호 관계를 묘사하는 합리성까지 갖추고 있어 세계 문자사에서 유례가 없는 문자학적 놀라운 업적이다. (레드야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 (5) 한글의 문자 체계는 문자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단위 기호의 부분들이 음성의 분석적 자질을 대표하는 문자 체계로, 세계에서 유일하다. (차오, 중국 언어학자)
 - (6) 한글은 단순성과 편의성에 감탄할 만하며 표음문자이지만 새로운 차원의 자질 문자 체계로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평가된다. (샘슨, 영국 언어학자)
 - (7) 한글은 인간이 개발한 문자 체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표기법 체계이다. (다이아몬드, 미국 과학자)

3.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자생활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자생활을 정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문자 정책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관한 문헌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외솔 최현배 교수의 ‘고친 한글갈’(1961)과 안병희 교수의 ‘한글의 창제와 보급’(2000)이 있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솔은 ‘한글 쓰기의 변집(한글 사용의 진흥)’을 한글의 창제 시기, 정착 시기, 변동 시기, 간편화 시기, 각성 시기, 대성 시기의 여섯으로 나누고 각 시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창제 시기는 임금이 직접 한글을 지어 쓰던 시기이요, 정착 시기는 양반 계급이 한글을 쓰기 비롯한 시기이요, 간편화 시기는 한글이 아주 평민의 손에 만만히 쓰이던 시기이요, 각성 시기는 독

립된 나라 정부가 백성과 함께 한글을 높여 쓰기 비롯한 시기이요, 대성 시기는 모든 장애를 없애 버리고 자유로이 그 과학적 성능을 발휘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글이 그 탄생 이후로 무난히 자라서 임금의 손에서 양반에게로, 양반의 손에서 평민에게로, 평민의 손에서 나라와 백성에게로 순조로이 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다. 그 창제시기에 있어서는 완고한 넓은 사대주의 세력의 맹렬한 반대에 봉착하였으며, 정착 시기에는 연산군의 책 태우는 약정이 있었으며, 변동 시기에는 왜란의 참화가 훈민정음의 원본까지 영영 인멸의 운명으로 몰아넣었으며 간편화 시기에는 비교적 널리 쓰이기는 그 쓰는 법이 한글 본연의 성능을 크게 불구자로 만들었으며 순조 때부터 갑오경장에 이르는 한 백 년 동안에는 한글이 아주 침체 부진의 상태에 빠졌던 것이며 각성 시기에는 실로 현대적 비약을 할 만한 좋은 시기였지만 그 악운은 더욱 극악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은 우리 겨레와 함께 한글을 아주 말살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체 높은 이상과 씩씩한 과학다운 건강성을 타고난 한글은 그 첩첩한 액운과 난관을 개척 돌파하여, 드디어 대성 시기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액운은 한글의 발전 계단에 번번이 찾아들기를 잊지 아니하고 계속 생겼으니 이른바 정부의 ‘한글 간소화’, ‘구 철자법으로의 환원’이란 것이 곧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한글은 용감히 승리를 관철하였으니 이는 온 민중이 한글의 과학성, 위대한 이상에 깊은 각성과 신념을 가지고 분투한 결과라고 하겠다.

안병희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의 문자생활은 주로 한자로 이루어지는데 한자를 가지고 한 문자생활은 다시 순수한 한문 곧 고전 한문으로 하는 문자생활과, 우리나라의 한자음과 새김을 이용한 한자 곧 이두로 우리말을 적은 문자생활의 두 가지로 나눈 뒤, 삼국 시대 이후의 문자생활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상당 기간 한문으로 계속되었다고 하였으며 한글 창제 이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글은 한자에 비하면 배우고 사용하기가 여간 쉬운 문자가 아니다. 한글로 쓴 글은 한문이나 이두문으로 나타내기 힘든 감정이나 사실도 쉽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정인지가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이는 하루아침에 배우고 어리석은 이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한글이다. 한자로는 엄두도 못 내던 사람들에게도 한글의 창제로 문자생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한자에 의한 문자생활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하였다. 공적인 문자 생활은 여전

히 한자로 행하였다. 공적이 아닌 문자생활에 제한되어 한글이 사용되었다. 한자나 한문을 공부하기 위하여나 백성의 교화나 불교의 포교를 위한 문헌에서 소설과 시가의 창작이나, 아녀자들과 또는 그들끼리 주고받는 편지에서, 한글이 사용되었다. 한글이 창제된 뒤로 우리 문자생활에서는 한자와 한글에 의한 이러한 주종의 역할 분담이 있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자와 한글에 의한 문자생활의 이중 구조는 조선 초기에 이루어져서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이런 이중 구조는 계속되었으며 한글 전용 정책의 기본 정신은 1948년에 제정된 이른바 ‘한글전용법’(법률 제6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문자 생활은 그것이 공적이건 사적이건 가릴 것 없이 모두 한글로만 쓰는 데 있다. 그러나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바로 다음 해인 1949년 9월에 ‘한자 사용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어 그것이 가결됨으로써 한글 전용 정책과 한자 교육 정책은 지금까지 혼란을 거듭하게 되었다.

4. 한글 진흥 정책의 미래

4.1. 국어 정서법과 한글 표기의 개선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현대 국어의 정서법 관점에서 한글 표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국어 4법이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 중에서 띄어쓰기와 고유 명사의 표시를, 표준어 규정에서 표준어의 정의와 사정 방법을, 그리고 외래어의 표기, 로마자의 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띄어쓰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없었고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다가 갑오경장 이후에 권점(圈點)과 빈칸에 의한 두 가지 띄어쓰기 방안이 나타난다. 권점 띄어쓰기는 ‘독립경고문’(1894년)의 국문, 한문본에 흑점이 찍혀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봉운의 ‘국문정리’(1897)에는 권환(동그라미)이 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주시경의 저서에는 띄어쓰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국문초학’(1909)에는 흑점을, ‘국어문법’(1910)에는 권환을 썼고 ‘말의 소리’(1914)에 와서는 흑점, 권환과 아울러 겹침표(>)를 썼음

을 볼 수 있다. 매우 정밀하게 형태론적, 통사론적 사실들을 분석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옛날에도 권점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용비어천가는 국문 가사와 한문 문장에서 구절에 권환을 쳤다.)

이에 대하여 빈칸 띄어쓰기는 ‘독립신문’(1896)이 채택함으로써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어를 비롯한 서양 언어의 맞춤법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 서재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였으므로 우리말에 이 방법을 택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독립신문’의 창간호 ‘논설’에서 ‘귀절을 떼여’ 쓸 것을 주장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20세기에 들어 와서 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빈칸 띄어쓰기가 점차 세력을 얻어 드디어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것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빈칸 띄어쓰기도 주로 순국문체에서만 시행되었고 국한문혼용체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오늘날의 띄어쓰기는 전반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어사전, 교과서, 신문, 잡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맞춤법의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이 쉽게 언어생활을 알 수 있도록 띄어쓰기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의미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의존 명사나 단위 명사 등도 붙여 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고유 명사의 표시는 가독성을 높여 주고 암기력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한글 표기에서 고유 명사임을 표시한 것도 ‘독립신문’이었는데, 오른쪽에 방선(傍線)을 그어서 표시하였다. 국명(國名)이나 지명(地名)에는 복선을, 인명에는 단선을 그어서 구별하였다. 그런데 이 신문은 제1권 102호까지만 이 복선법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 호부터는 그것을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복선법은 중국에서 간행된 ‘태서신사’(泰西新史)를 학부에서 번역한 국문본(1897)에서도 발견된다. 이 책에서는 국명과 지명은 오른쪽에 복선을, 인명은 왼쪽에 복선을 그어 구별한 점이 다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방법이 계승되었는데 최남선이 간행한 잡지 ‘소년’(少年)이 그렇다. 그런데, ‘청춘’(靑春)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듯 고유 명사의 방선 표시법은 널리 행해지지 않았는데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부록 2. 문장 부호)에서 “고유명사를 표시하고자 할 적에는 중

서에서는 좌방에 단선을 긋고, 횡서에서는 하선을 긋는다.”라고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그 방법이 번거롭고 보기에도 좋지 않음에도 그 뒤의 개정판에서도 이 규정이 유지되었음은 고유 명사 표시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간행물들을 살펴보면 고유 명사의 표시는 거의 포기하고 있다. 국어사전도 예외는 아니다. 간혹 인용부(낫표, 작은따옴표)를 한 글을 보기도 하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특수한 예로서, 한국판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인명이 처음 나올 때 고딕체로 표기하고 있다. 현대 국어의 정서법에서도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 식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표준어의 정의와 사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준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양 있는 사람’의 기준과 ‘서울말’의 경계, 그리고 ‘현대’의 개념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국어학자들이 상당히 있다. 즉, 서울의 행정적, 지리적 팽창으로 수도권 전체가 ‘서울’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지리적으로 규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서울 사람끼리 결혼한 가족도 찾기 어렵고 교육 수준도 일정하지 않아서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막연하기만 하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두루 쓰는’이라는 표현도 모호하기만 하고 ‘~로 정함’이라는 표현도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이라는 것임을 나타낸다. 더구나 ‘~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현대 서울말이면서 표준어가 아닌 말이 있을 수 있고 현대 서울말이 아니지만 표준어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령, ‘부주, 삼춘, 사둔’은 전자에 해당하고 ‘멍계, 영글다’는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표준어의 정의에서 ‘서울말’을 빼고 ‘공통어’를 넣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준어의 사정 방법도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발음 변화와 어휘 선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제시된 표준어가 약 700여 개에 지나지 않아서 제시되지 않은 어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형태와 변종 어휘가 있는 것들도 많다. 가령, 곱살굿다-곱살맛다, 복사뼈-복숭아뼈, 섬뜩하다-섬찝하다, 엉큼하다-웅큼하다, 떨어뜨리다-떨구다, 굵실거리다-굵신거리다, 으스스하다-으시스스하다 등은 어느 한쪽만 표준어인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순도

순-오손도손, 만날-맨날, 야멸치다-야멸차다, 맨송맨송-맹송맹송, 바둥바둥-바둥바둥 등은 표준어가 현실 언어보다도 현저히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한쪽 어형만을 표준으로 제시하였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언어 사용 실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들을 일일이 조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말뭉치(코퍼스)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 빈도를 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외래어의 표기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 현행 외래어는 원음주의와 관용을 존중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선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국어의 특성에 맞고 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원음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고 하였는데 굳어진 외래어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일일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아야 알 수가 있으며, 원어를 알고 있어도 외래어 표기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가 않다. 외래어 표기 세칙을 살펴보아도 외래어 용례로 나와 있는 외래어는 절반이 외국어이다. 외래어 용례로 제시된 104개 중에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오른 것은 59개에 불과하다. 외래어 발음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어사전이나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도 외래어 발음에 관한 정보는 없다.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예사소리(평음)로 발음해야 하겠지만 현실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약어(略語)나 두문자어(頭文字語)의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하다. 가령, 'ASEM, APEC, ANZUS'의 표기가 '아셈, 에이펙, 앤저스' 등으로 음운 구조는 비슷한데 외래어 표기는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처럼 각 언어권별 외래어 표기 세칙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전 세계의 언어권별로 외래어 표기 세칙을 제정한다면 수천 개에 해당하는 표기 세칙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21개의 외래어 표기 세칙(3개 언어 추가 고시 검토 중)이 있는데 외래어의 표기 방법도 문자를 달리 적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로마자 표기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한글을 국제 사회에 널리 사용되는 로마자로 음역(音譯)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은 일차적으로 한국인을 위해 만든 표기법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을 위해 만든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법이 외국인을 위한 표기법이라

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외국인을 위한 것일까 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흔히, 외래어 표기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일단 자국어의 하나로 받아들인 상태로 표기하는 체계인데 반해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어 상태를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표기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지난 2000년에 개정되었는데 표음주의 방식을 반영한 전사법을 사용하고 있어 발음과 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모음의 표기와 자음의 표기가 쉽지 않으며 내국인을 위한 것인지 외국인을 위한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특히, 모음 중에 종전 표기법과 달라진 것은 ‘어, 으, 의’ 3가지이다. 이 중에서 ‘어’와 ‘으’는 특수 부호를 없애고 ‘eo’와 ‘eu’로 하였고, ‘의’는 ‘으+이’의 구성이나 ‘ui’로 한 것이 특이하다. 자음 중에서 달라진 것은 ‘ㄱ, ㄷ, ㅂ, ㅈ’을 ‘g, d, b, j’로 적도록 한 것인데 종전 표기법에서는 단어 첫머리에서는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점을 반영하여 ‘k, t, p, ch’로 적고 유성음 환경에서는 ‘g, d, b, j’로 적도록 하였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혼란을 초래하였고 내국인도 성명과 기관명 등 기존에 사용해 왔던 표기를 바꾸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정보화 차원에서도 입력 시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다. 가령 ‘여의도’를 로마자로 전환하면 ‘Yeouido’가 되어 과거의 로마자 표기보다도 느리다는 것이다.

아무튼 한글이 세계의 많은 글자들 가운데 조직성이나 체계성 면에서 우수한 것은 인정받고 있지만 한글은 완벽한 글자는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한글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누구라도 쓰기 편하고 편리한 문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4.2. 한글 글자꼴의 개선

한글은 글자꼴이 다른 문자들과 전혀 다른 과정으로 결정된 문자이다. 따라서 한글의 제자 원리가 유별난 만큼 글자꼴에 관한 것도 역시 유별날 수밖에 없다. 한글의 글자꼴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글 글자꼴이 생겨난 유래나 역사도 논의될 수 있고 한글 글자꼴이 지닌 형태상의 특징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글의 글자꼴이 정해진 것은 이미 제자 원

리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 한글의 제자 원리가 곧 글자꼴의 유래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 글자꼴의 특징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자모)의 글자꼴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각각의 글자꼴이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고, 둘째는 각각의 글자꼴이 독립된 것이면서도 실제 표기에서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한글 글자꼴이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독특한 제자 원리 때문이다. 글자의 모양을 정할 때 소리의 특징(자질)을 연구하여 그것을 글자꼴에 반영했기 때문에 글자꼴이 여러 가지 정보를 지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도 그냥 짓는 경우와 돌림자를 넣어 짓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두 가지 이름은 그것이 나타내는 정보와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냥 짓는 경우는 단순히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것뿐이지만 돌림자를 넣어 짓는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정보(돌림자 속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도 나타내 준다. 한글의 글자꼴이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한글의 글자꼴에는 음운론적인 정보와 철학적인 정보 등이 본래 입력되어 있는 것이다. 각 글자들이 나타내는 소리의 단위는 로마자와 같이 음소이지만, 로마자와는 구분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각각의 글자들이 고유의 꼴을 지니면서도 그것이 실제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단위의 한 요소라는 점은 모아쓰기라고 하는 표기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아쓰기라는 표기 원리는 글자꼴이 결정되고 난 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아쓰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글자꼴들이 결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모아쓰기라는 표기 원리는 각 글자꼴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이 없다.

초성과 중성의 글자꼴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구분되어 만들어진 것도 그것을 합쳐서 쓸 것임을 미리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마자처럼 표기하는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 형태상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가족 등의 집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가장이나 주부, 자식 등의 신분은 개체로서보다는 집단의 구성 요소로서의 신분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초성이나 중성 등도 독립된 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한 요소(부분)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초성을 적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 역시 그것만

으로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 결국 한글의 글자꼴에 관한 논의는 문자(자모)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실제로 같은 초성자라고 하더라도 초성에 쓰일 때와 종성에 쓰일 때 서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글의 글자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의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모 순서는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훈민정음)의 순서와는 다르다. 예컨대, 초성의 경우 현재는 ‘ㄱ ㅋ ㆁ ㄷ ㅌ ㄴ ……’의 순서이지만 훈민정음에서는 ‘ㄱ ㅋ ㆁ ㄷ ㅌ ㄴ ……’의 순서로 되어 있다. 훈민정음에서의 자모 순서는 당시의 이론에 근거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초성을 조음 위치(아/설/순/치/후)와 조음 방법(전청/차청/불청불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그런 기준에 의해 순서도 결정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모 순서가 이론적이라는 점인데 이론적인 자모 순서를 익히는 것은 단순히 순서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재된 이론을 함께 익히는 것이다.

현대의 자모 순서는 ‘훈몽자회’부터 나타나서 조금씩 변해 온 전통적인 순서를 그냥 따른 것이다. 문제는 표기 원리는 전통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바꾸면서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모 순서는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다. 즉 맞춤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모 순서가 표기법과 관련하여 이론적 근거를 지니던 것이었는데 맞춤법이 바뀌므로 해서 그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잃게 된 것이다. 훈몽자회에서는 한글 자모를 세 부류로 나누었다. 초성과 종성에 함께 쓰는 여덟 자와 초성에만 쓰는 여덟 자 그리고 종성을 구분한 것이다. 그와 같은 분류는 종성에는 여덟 자만 써도 되는 당시의 표기법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자모 순서는 훈몽자회의 그것과도 조금 달라졌다. 즉 훈몽자회에서는 ‘ㄱ ㅋ ㆁ ㄷ ㅌ ㄴ (△ ㄹ) ㅎ’의 순서이었는데 지금은 ‘ㄱ ㅋ ㆁ ㄷ ㅌ ㄴ ㅎ’으로 바뀌어 있다. 이것은 ‘아/설/순/치/후’라는 순서도 깨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자모 순서는 초심자나 전문가나 할 것 없이 모두 기억하기가 힘들고 무조건 외워야만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글의 특성을 간과하고 무시한 데서 야기된 결과이다. 한글은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 만들어진 문자로 글자꼴 하나하나에 이론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현재의 자모 순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ㄴ ㄷ ㅌ ㅍ 등의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는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발음 위치가 모두 같다는 것이다. 한글은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만든 문자이므로 글자꼴에도 그 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자모 순서를 정할 때도 이들 문자들을 나란히 배열하게 되면 자형을 익히기도 쉽고 한글의 제자 원리도 익히고 음성 이론도 저절로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글 표기와 관련하여 문자의 모양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종 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에는 글자가 이렇게 작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요즘 신문이나 사전을 보면 ‘홍’인지 ‘홍’인지 ‘홍’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심지어 ‘학장실’과 ‘화장실’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한글의 정확한 특징을 알고 있다면 네모꼴 안에 갇혀 있는 문자의 모양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네모꼴의 한글꼴이 아름다운 문자 모양을 보여 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어학자들은 이런 연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앞으로의 한글 글자체 연구는 실용과 아름다움을 함께 아우르는 창의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한글을 대표하는 글자꼴과 크기는 무엇인지, 공문서나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표 글자꼴과 크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글자꼴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최소한의 표준은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4.3. 컴퓨터 한글 코드의 개선

한글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 범위와 코드 체계를 생각해 보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글 문제는 컴퓨터마다 서로 다른 코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료의 호환성 여부로 큰 어려움과 불편이 따랐으나 이제는 컴퓨터에서의 한글 코드 체계가 거의 통일이 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한글 코드의 두 형태인 완성형 한글 코드와 조합형 한글 코드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먼저,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한글 코드는 한글의 개념에서 보면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완성형 한글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2350자, 한자 4888자, 특수문자 986자 합계 8224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글 자모의 정상적인 결합에 의한 모든 한글 자형들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

한 글자 수의 제약은 있는 글자만 사용하고 없는 글자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코드의 개선이나 확장에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는 점도 단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완성형이란 이름도 자모가 결합된 하나하나를 독립된 글자로서 코드화하고 한글의 모양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인데 이 코드 체계는 어떠한 개선이나 변경이 가해질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완성된 체계인 것이다. 원래는 국제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글자 수의 제약에 의하여 한글의 글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실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국어학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완성형 한글은 현행 한글 맞춤법과 국어 낱말들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맞춤법이나 국어 낱말은 시간이 지나면 맞춤법이 바뀌고 새로운 낱말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글 코드를 바꾸어야 하거나 새 낱말을 적당히 추가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한글 배열이 맞지 않는 한글 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겹이 난다’를 ‘겹시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끗이’를 ‘깨끄치’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언젠가 이러한 발음들이 표준어로 규정된다면 그때는 이들을 문법에 맞게 표기하기 위하여 ‘값’과 ‘꽃’이라는 글자가 필요하지만 완성형에는 이러한 글자가 없으니 표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글자들을 한글 배열에 맞도록 추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겹’과 ‘것’ 사이에 ‘값’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는 이미 빈칸이 없다. 한 글자라도 중간에 넣게 되면 다음 글자부터 순차적으로 코드값이 바뀌게 되어 전체적으로 다른 코드 체계가 되는데, 어느 한 순간에 한글 코드를 바꾸게 되면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한글 배열이 맞지 않아 정보 교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글 코드의 체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타당한 방식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완성형 한글 코드는 국어 자료 처리나 일상적인 문자 생활과도 결코 조화되지 어려운 방식이다.

조합형 한글도 완성형 한글보다는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국어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첫째는 한글의 수효에 관한 문제이다. 한글 코드 문제로 인식되어 온 완성형 한글과 조합형 한글의 본질도 바로 이 문제이다. 완성형 한글은 한글의 사용 빈도수를 근거하여 가려 뽑은 2,350자의 음절만을 사용하

는 방식이기 때문이며 조합형 한글은 현행 맞춤법에서 규정된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에 의한 11,172자의 한글 전부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어학적인 면이나 일상 언어생활 면에서도 글자의 수요가 풍부한 조합형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한글의 수요는 맞춤법에 규정된 11,172자를 넘어서 고문헌에 사용된 옛글자, 어간 형태의 옛글자, 방언 형태의 글자, 개화기 문헌의 글자 등 현행 맞춤법에 벗어난 한글 형태가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모들의 숫자는 이미 현행 2바이트 조합형 코드 구조가 수용할 수 있는 초성, 중성, 종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자모별 조합형은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행 조합형 한글 바탕 위에 옛글자는 한자와 같은 방식의 완성형을 가미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는 한글 코드 체계의 문제이다. 조합형 가운데 코드화할 자모 단위와 그 배열 순서의 문제이다. 자모 단위에 있어서 ‘과, 거, 나 ……」와 같은 겹모음이나 ‘하, 리 ……」 등과 같은 겹받침들을 하나의 단위로 할 것인가 두 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글의 기본 자모는 자음 14자, 모음 10자 합계 24자, 옛글자를 포함하더라도 자음 17자, 모음 11자 합계 28자밖에 안 되므로 이들 문자에만 코드값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즉, 기본 문자가 아닌 겹자모들을 모두 단자모 형식으로 풀어서 코드화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컴퓨터의 효율성이나 우리 문자 생활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2바이트 조합형은 초성 19자, 중성 21자, 받침 27자로서 이들의 산술적인 결합에 의한 글자 수요는 모두 11,172자가 된다. 한글의 자모들이 이렇게 선정된 것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른 것이지만 컴퓨터에서 한글을 실현하는 기준은 한글 맞춤법과는 무관하게 컴퓨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문자 생활의 실용성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한글 실현의 방식이다. 한글 실현 방식에는 하드웨어 방식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방식은 컴퓨터에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개인 사이에 컴퓨터의 동일한 한글 환경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하드웨어 개량판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요즘은 컴퓨터의 기억 장치 용량이 넉넉하여 소프트웨어 한글을 사용하더라도 불편은 없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한글 방식에도 한글 도스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 램(RAM) 상주 방식이 있는데 여전히 문제점

이 있다. 한글 도스 방식은 완성형 한글이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하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자료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램 상주 방식은 영문 소프트웨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컴퓨터에서의 한글 코드 문제는 한자나 특수 문자 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단독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아무튼 어느 방식을 채택하여도 문제는 있지만 현행 한글 맞춤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컴퓨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선된 한글 문자 코드를 서둘러 개발해야 할 것이다.

4.4. 한글 문화권 확장의 꿈

어느 젊은 영문학자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를 ‘한글’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설문 조사 결과 ‘한글’이 1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한글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 문자만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다.

세계 어디서나 ‘USA’가 미국을 상징하는 국가 이미지가 되듯이 대한민국의 상징은 ‘한글’이 되도록 한글 문화권의 원대한 꿈을 꾸어야 할 것이다. 결코 ‘다이나믹코리아’(Dynamic Korea)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으며 국가 이미지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외국인이 ‘한글’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미국의 자원 봉사단인 ‘평화 봉사단’(Peace Corps)이 개발도상국을 찾아다니며 교육과 문화, 의료 활동을 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듯이 이제는 우리도 아시아가 동반 성장하도록 ‘문화 나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언어가 있고 언어 가운데 우리의 ‘한글’이 우뚝 솟을 수 있도록 한글 문화권 확대의 꿈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글 문화권 확대의 꿈은 과거에 열강의 제국주의가 강요한 언어 침탈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문자가 없는 민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문자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한글 나눔 운동’을 함께 펼쳐야 할 것이다. 말(언어)은 있지만 기록할 문자가 없는 소수 민족 국가나 개발 국가인 아프리카 등 어디든지 기록할 문자를 원하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한글 세계화나 한글 수출의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자칫 문화 우월주의나 한글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들이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글 표기의 실용성과 편리성을 내세워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문화 상호주의 방식을 내세워 그들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한글’로 기록하여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구전되는 그들의 전통 가요와 설화 등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한글’을 공유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글 문화권의 영역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선구적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 일찍이 오스왈드 스펜글러(Oswald Spengler)가 서구의 몰락을 경고하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예언한 바 있듯이 영원한 로마도 영원한 미국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억압받아 왔던 아시아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한국의 발전에 이어 중국, 인도, 싱가포르가 일어나고 아시아 각국이 일어날 것이다. 아시아에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으므로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바 없는 약소국가이지만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으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때는 열강의 침략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신흥 대국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반 만 년의 역사와 문화 민족, 경제 발전, 민주화의 성취, 근면한 국민성 등이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통의 수단인 ‘한글’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했던 일이다.

전 세계 6,000여 언어 중에 한국어는 사용 인구 측면에서 10위권의 대국 언어라는 발표도 한글 문화권 확대에 대한 꿈을 부풀게 하고 있다. 2007년도 유엔(UN)이 발표한 세계 주요 언어 분포와 응용력 조사 자료에서 한국어는 세계 9위에 속한 언어라는 보고도 있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특허 협력조약(PCT)에서 한국어를 9번째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미지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좋은 때이다. 한국인의 정신 문화사적 가치와 한국인의 잠재적 능력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민족이므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과 연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민주화를 최단 시간에 이루었기에 대단히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 바로 알기와 한국어 학습 열풍도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한글 문화권 확대에 대한 꿈은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세종 대왕의 문자 정책과 21세기의 한글 진흥 정책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 약간 산만한 점도 있으나 세종 대왕의 정신과 그 업적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늘에 이어 받아 올바른 21세기의 한글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세종 대왕은 강한 민족 자주 정신을 가지신 분이였다. 모화사대사상에 젖어 있는 많은 관료들에게 중국에 대한 ‘나’를 분명히 밝히려 하였다. 중국의 강한 압력 속에서도 우리 겨레의 독자성을 지키려고 무한히 노력하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한자와 전혀 판관인 과학적이고 편리한 훈민정음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세종 대왕은 백성 위주의 정치를 펼쳐 민본과 인도주의 사상을 가지신 분이였다. 한문만으로 문자 생활을 누리려는 특권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다. 또한, 세종 대왕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였다. 훈민정음을 만든 것만으로도 위대한 창조였지만 이 글자를 돈에 새기고 관리 등용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고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문학 작품을 쓴 일 등은 그런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세기 한글 진흥 정책에서는 국어 정서법, 한글의 글자꼴, 컴퓨터의 한글 코드, 한글 문화권의 꿈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띄어쓰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고유 명사 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자의 모양과 관련하여서도 한글 글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표준어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고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글의 글자꼴과 관련하여 자모 순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컴퓨터 상의 한글 코드와 관련하여 완성형과 조합형 모두 문제점이 있으므로 컴퓨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세종 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것을 지금에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 자주 정신을 살려 나가는 일이다. 이 정신은 오늘날에 이어가는 길은 우리말과 글을 곱고 바르게 쉽게 다듬는 일일 것이다.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는 길은 곱고 바르고 쉬운 우리말을 창조적으로 부려 쓰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둘째, 세종 대왕의 민본과 인도주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모든 글들이 한글만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부 지식인들이 어려운 한자를 써서 자신의 지식 정도를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셋째, 세종 대왕이 분석한 국어의 근본 원리를 오늘날의 국어학자들이 이어받아 한글 맞춤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문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 관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기구 가운데는 한글을 비롯하여 문자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흥하는 전문 연구 기관이 없다. 따라서 문자 정책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있지만 사실상 문자 정책에 대해서는 그 미치는 힘이 너무도 미약하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을 확대 발전시키거나 별도의 전문 기관 설치(가칭, 한글진흥원)가 필요하다.

다섯째, 문자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적인 문제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국가가 정상적으로 문자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개선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참고 문헌〉

- 강창석(1996). 「한글의 제자 원리와 글자꼴」. 『21세기의 한글』. 문화체육부.
- 김미경(200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글』. 자유출판사.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김정수(1990). 『한글의 역사와 미래』. 열화당.
- 남광우(1973). 『개정 현대 국어국자의 제문제』. 일조각.
- 안병희(1983).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 _____(2000). 「한글의 창제와 보급」. 『겨레의 글, 한글』(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 이기문(1996).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21세기의 한글』. 문화체육부.
- 임용기(2000). 「문자 정책 분야」. 『21세기의 국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 정인상(1996). 「국어학에서 본 컴퓨터와 한글」. 『21세기의 한글』. 문화체육부.
-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도서출판박이정.
- _____(2006). 「세종의 언어 정책과 21세기 한글」. 국립국어원 학술 발표 자료집.
- 최현배(1947). 『글자의 혁명』. 군정청 문교부.
- _____(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 한재준(2007). 『곱고 바른 한글 활자꼴 개발의 필요성 연구』. 국립국어원.
- 허 옹(1997). 「세종조의 언어 정책과 그 정신을 이어받는 길」.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 560돌 한글날 기념주화 / 세계주화책임자회의에서 세계 최고 주화로 선정)



<abstract>

The Alphabet policy of the Great King Sejong and the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Hangeul

Choi, yong-gi

The Great King Sejong invented the Hangeul(Hunminjeong-eum) that was convenient and easy for his poor people to use. It was a great creation for him to make Hangeul. He carved it on currency and adopt it an examination subject to engage men of ability in the state examination(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He also wrote original works like 'Wol-incheongangjigog'.

This paper presented the points that we have to improve according to the rules of Korean spelling(orthography), the fonts of characters, the Hangeul code of computer, and the dream of the Hangeul's cultural area. Especially, I revealed the problems of the spacing words and the marks of a proper noun in the perspective of the rules of spelling of Hangeul. And I urged improvement of the fonts of Hangeul.

This article showed the needs of changing the order of the korean letter. And I asserted that the Hangeul code of computer will improve because both of the type of completion and the type of association have the problems. Most importantly, I presented how we could receive the Great King's intention and what the ways were for us to refresh it.

Keywords : Hunminjeong-eum, Wol-incheongangjigog, Hangeul code,
Spacing words, Fonts of hangeul

이 논문은 2010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8월 12일에 심사완료되어 2010년 8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